종단소식

4년제 동방불교대학 설립신청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최근 재단법인 태고학원을 설립한데 이어 (가칭) 동방불교대학교를 4년제 단과대학으로 하는 대학설립허가신청서를 지난 8월30일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에 접수했다.

태고종은 오는 9월 30일 대학설립허가를 받은즉시 경기도 용인 2만여평 부지에 제반 시설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동방불교대학교 설립을 준비중인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1차로 불교학과 1개과로 시작하고 이어서 불교미술과(불화과) 불교음악과(범패과)등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성북동의 현 동방불교대학은 교양대학형태로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변 심인당 설치등 해외포교 박차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이 창종 50년을 기점으로 해외포교불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락혜통리원장등 해외포교조사단은 지난 7월 중국의 연변지역을 방문하고 아성시 연길포교소를 연길시로 옮겨 심인당으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을 확정, 부지물색을 위해 지난 23일 건설부장 대경정사를 중국현지에 파견했다. 진각종은 심인당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0월경 헌공불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미주지역 포교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락혜통리원장 혜인재무부장이 지난 8월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불광심인당(주교 지현정사)등 LA일대를 방문했다.

천태종 간부 2천여명 하안거 참석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 관성당에서 2천여명의 각 말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4회 하안거 간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부교육에서는 '불교의례'(강사 춘광스님) '불교신행과 포교방법'(한정섭법사) 등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96년 총무원 각 부서 하반기 종무지침이 하달됐다.

삼광사봉사회 재소자 생일법회

천태종 부산 삼광사봉사회(회장 김중고)는 지난 8월21일 부산교도소 8월 생일불자 51명을 초청, 재소자 생일축하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후 삼광사봉사회는 생일불자들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2시간동안 생일축하 여흥을 펼쳤다. 이번 생일축하법회가 11회째인 삼광사봉사회는 재소자들에게 생일축하선물로 고급수건을 전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열반의 깨달음으로 성불하라고 당부했다.

방송가 소식

불교 대구방송 12일 시험전파

불교대구방송이 개국에 앞서 오는 12일 시험방송을 실시한다.

부산, 광주에 이어 지방국으로는 3번째로 개국하게 되는 불교대구방송은 이번 시험방송을 필두로 개국까지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불교대구방송의 시험방송은 FM주파수 94.5MHz를 통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 방송된다.

태국, 드라마 '아리랑' 인기리 방영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태국 참전장교와 한국 소녀와의 사랑얘기를 그린 태국 〈TV채널 5〉의 일일드라마 '아리랑'이 태국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드라마는 전란의 와중에서 만난 남녀의 국경을 넘은 안타까운 사랑이야기. 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부상을 당한 태국인 장교가 야전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인 시골소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휴전후 애인이 기다리는 태국으로 돌아가고 그를 잊지 못하던 소녀는 사찰에 들어가 수도승이 된다는 게 드라마의 줄거리다.

지난 8월1일 처음 방송돼 2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이 드라마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여동안 방송될 예정.

각본은 현지 영화감독 재즈시암과 태국왕실 번역가출신의 한국인 최혜자씨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팔만대장경 이운뱃길 답사

해인사 승가대 학인스님 32명 강화서 고령 장경나루까지

강화에서 판각된 고려 팔만대장경이 경남 합천 해인사까지 옮겨지는 데 해로(海路)가 이용됐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굳어진 상태.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강화에서부터 대장경이 배에 실려 도착한 고령 장경나루까지의 뱃길 이운경로를 해인사승가대 학인스님 32명이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그대로 직접 답사해 화제를 모았다.

해인승가대 교지 '수다라(편집장 본학)' 편집진들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수다라역사탐방'의 일환인 이번 답사는 올해가 세번째. 팔만대장경 이운경로를 찾게된 취지는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기념함과 동시에 팔만대장경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

이번 답사는 지난 8월 28일 육로나 해로로 먼 길을 온 팔만대장경이 도착했던 공통 지점인 고령군 개진면 장경나루에서부터 출발했다. 개진포는 원래 이름이 개경포(開經浦). 이름에서부터 경관을 살려나른 역사적 사실을 알수 있는 곳. 이곳에서 스님들은 머리에 소중하게 이고 경관을 나른 먼 옛날 민초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시 감회에 젖었다. 저녁에는 관각성지로 유서깊은 강화 선원사에 도착했다. 복원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성지복원에 들어간 선원사에서는 1배(拜) 1자(字)판각의 성스러운 호국의지를 가장 첨예하게 느낄수 있었다.

29일에는 유명한 포구였던 영광 법성포와 선운사를 들르고 30일 목포 해양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김용환 박물관실장의 안내로 해양박물관을 돌아본 스님들은 이원식소장(고대선박연구소)의 설명으로 고려시대 배의 모양과 역사, 대장경이 어떻게 실려 옮겨졌는가 등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이어 남해 관음포와 화방사에 도착. 천연기념물 산다나무가 자생하는 이곳은 분사도감이 설치, 대장경의 판각과 인경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유추되는 곳이다. 이곳을 둘러본 스님들은 남두석씨(전통서각연구가)의 지도로 잠시동안 판각 및 인경작업을 하며 그 옛날 경전을 한자한자 새긴 선조들의 불심과 호국의지를 헤아려보기도 했다.

세계유산등록기념 '가치 일깨우기' 일환
"불경새긴 선조들 불심-호국의지에 감탄"

답사에 참가한 성원스님('수다라' 편집위원)은 "대장경이 이운된 경로를 따라 역사적 사실을 직접 확인케 되니 감격스럽고 선조들의 깊은 불심에 그저 감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엄앵란씨—자전에세이 발간
진송남씨—신곡 '더하고 빼고' 발표
김민종씨—2번째 솔로앨범 마무리

◇엄앵란씨

◇진송남씨

◇김민종씨

불자연예인 가을걷이 '한창'

책출간, 신곡발표 등 가을을 맞는 불자연예인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환갑을 맞은 왕년의 여배우 엄앵란씨가 자전에세이 〈엄앵란 뜨거운 가슴에 좌절이란 없다〉(형선 刊)를 펴냈다. 어린시절부터 최근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남김없이 털어놓은 이 책에서 엄씨는 무슨 이야기라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관안한 아주머니'로 변신했다. 책출간 이외에도 엄씨는 KBS라디오 '엄앵란 강남길의 행복만들기', KBS-2TV의 '엄앵란 이택림의 사랑방', '아침마당'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MC로서 전문 방송인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또 진송남씨 부부와 탤런트 김민종씨도 신곡발표와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달전 트로트풍의 새 노래 '더하고 빼고'를 발표한 진송남씨 부부는 이 노래가 요즘 방송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자 더욱 신이나 있다.

김민종씨도 현재 영화 '귀천도', SBS-TV '폭풍속으로', KBS-2TV '머나먼 나라' 등에 겹치기 출연등 눈코 뜰새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2번째 솔로앨범 작업에 열을 올리며 만능엔터테이너임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일 새 앨범에는 영화 '귀천도'의 주제곡을 타이틀로 보다 강하고 터프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음악들이 담겨질 예정이라고. 〈은〉

'동국TV 불교아카데미' 개강 동국TV불교아카데미가 지난 2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첫날 1교시는 동국대 권기종교수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2교시에는 이기영박사가 '인도불교의 흐름'을 강의했다. 동국TV불교아카데미는 매주 월·화요일 오전 9시(순환방송 오후 2시10분)에 방송된다.

선우도량이 지난 1월 '사찰운영의 현대화를 위한 방향모색'이라는 기획좌담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이 지니는 의미, 사찰운영의 문제점, 사찰운영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오는 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실상사에서 제11차 수련결사를 개최, '미래사회와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구체화한다.

미리 가보는 선우도량 수련결사

16~18일 실상사… 법등·영담·현고스님 주제발표

○… '사원경제의 합리화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서는 법등스님(도리사주지)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금년 103억원에 이르는 종단예산의 운영현황과 조계종단 소속 1천7백83개 사찰중 공찰 8백23개 사설사암 960개의 소유부동산 2억 천7백만평(93년기준)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문제와 매각, 투자와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등 종단의 재무행정체계와 부동산관리현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법등스님은 사찰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가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중공의제를 통한 사찰재정의 투명화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사찰의 경제적 자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찰회계 및 예·결산은 '호주머니 속 재정운영'에서 탈피해 정당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사찰의 장부를 정비하고, 예결산의 절차에 따라 재정운영을 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사찰회계 및 부동산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등스님은 맺음말을 통해 "오늘날 사찰운영에 필요한 승가상은 신도대중의 신앙적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수행자와 사찰경영자의 역할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 제2발제자 영담스님(석왕사주지)은 부천 지역내에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영담스님은 "지방화시대로 이행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불교가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운동을 적극적으로 견인해내야 하는 것은 시대적요청"이라면서 사찰이 지역내에서 위상고양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지의 안정된 임기보장과 인사고과제를 통한 교역직 종무원의 업무효율강화 △사부대중의 신뢰가 바탕이 된 사원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했다.

○…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 보존과 대중포교'에 대해 발표하는 제3발제자 현고스님(송광사주지)은 사찰조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삶의 환경으로써 사찰조형 △수행환경으로써의 사찰조형이라는 맥락을 통해 모색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사찰의 위상과 기능변화에 대해 발제한다.

도필선 기자

사찰재정 투명화방안 모색
재가 참여하는 '사중공의제' 검토해야
지역사회 참여등 불교역할론 강조

목탁소리

대선바람과 원로스님

정성운 〈취재1부 기자〉

불교계에도 대선바람이 불어닥친 것일까.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지난 8월 중순 해인총림 방장 혜암스님의 법문을 실은 소책자 〈새정치포럼〉 13호를 배포하면서 대선을 앞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책자에는 지난 7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새연등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설한 혜암스님의 법문 전문을 실었다.

이 책자는 4만부를 제작, 전국 주요사찰과 불교계인사들에게 배포됐다. 국민회의 홍보기획국의 한 당직자는 경기·부산지역의 몇 사찰에서는 추가배포를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지난 호에는 개신교계 인사들과 김대중총재와의 대화내용을 책자와 녹음테잎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새정치포럼은 국민회의 홍보책자로 격주간으로 발행된다.

대선용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당의 홍보목적과 함께 각계 어른들의 '말씀'을 책자로 만들어 국민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며 "대선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만큼 대선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그러나 이 책자가 내년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내의 분석은 있었다고 말했다.

해인사측은 이에대해 혜암스님의 법문이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한 스님은 "방장스님은 법문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간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찌 쓰든 따로 말씀을 하시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계에서는 정치권의 대선바람이 일찌감치 불교계에 닥치면 이익될 것이 없다며 경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 선거바람이 불교계에 일찍 불어닥칠 경우 총무원을 비롯한 교계의 대표적 단체들이 중립선언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 설립되어 불교 전통의식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前 불교전통의식 교육원)」에서는 앞으로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문화유산인 범패와 승무, 요잡 및 작법등 불교의식의 전통의 맥을 우리 후손에게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교육대학에서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발전시키고자 불교전통의식에 뜻이 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제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제

2.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수계 득도한 자
2)오계를 수계한 자
3)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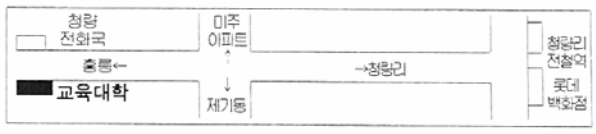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수계증명서 사본
3)추천서
4)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접수일자 : 1996년 8월 26일~9월 15일

▼ 약 도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